

문화의 도시, 오카야마를 가라



최근 일본 가가와현(香川 縣)의 나오시마 섬이 글로벌 관광지를 부상하면서 더불어 각광을 받는 곳이 있다. 가가와현과 이웃해 있는 오카야마현(岡山縣)이다. 도쿄나 오사카, 요코하마와 달리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고 보면 색다른 정취와 역사의 향기가 은은히 흐르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오카야마는 지리적으로 간사이 지방과 큐슈, 시코쿠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예로부터 교통과 물류의 요지였다. '하레노쿠니'(맑은 고장)라고 불릴 정도로 일조량이 많고, 코 앞에는 세토내해가 있어 육지와 바다의 산물이 풍성하다.



‘물위의 미술관’으로 잘 알려진 오카야마현 다카하시의 나리와 미술관 풍경.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나리와 미술관을 보기 위해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나리와 미술관 제공>

한집 건너 미술관... 전통과 현대 살가운 예향

오카야마가 문화 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현(縣) 내에 있는 구라시키(倉敷)의 덕이 크다. 도심에서 보통 열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구라시키 미관지구(美觀地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구라시키강을 끼고 과거 에도 시대의 창고 건물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현재는 고고관, 민예관, 일본향토완구관 등 갤러리나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점 등 역사와 현대가 공존한다. 특히 오카야마에는 일본 에도시대의 옛 정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명소가 많다.

오카야마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거리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오카야마성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고라쿠엔(後樂園). 오카야마 성은 총 8년간의 축성기간을 거쳐 1597년에 완성된 높이 20m의 복합성곽이다. 일본의 다른 고성과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창문주위의 바깥벽이 검은 관자로 둘러싸여 있어 ‘까마귀성’(烏城)이라고도 불린다. 상단부의 처마끝에는 황금잉어 등 금색으로 장식해 검은 외관과 조화를 이룬다. 성 내부에는 성주의 방과 오카야마의 옛 생활상이 재현돼 있다.

오카야마 성에서 쓰키미 다리를 건너면 고라쿠엔 남문으로 이어진다. 고라쿠엔(後樂園)은 이바라키 현 미토시의 가이라쿠엔, 이사와와현 가나자와시의 겐로쿠엔과 더불어 일본의 3대정원으로 꼽힌다. 1687년에 착공해 1700년에 완성된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회유식 정원(庭園)이다. 원래 이름은 오카야마성의 뒤편정원이라는 고엔(後園)이었으나 1871년 ‘인생의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뜻의 고라쿠엔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넓은 잔디와 연못, 계절을 달리해서 피어나

는 다양한 화초와 나무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오히라미술관은 오카야마현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오카야마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미술관인 오히라 미술관을 비롯해 세계적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다카하시 나리와 미술관, 오카야마 시립미술관, 하라쿠시 덴추 미술관, 유메지 미술관, 향토미술관, 토리하나 오오츠카 미술관 등 30여개의 미술관이 있다. 오카야마가 ‘미술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오히라 미술관은 오카야마를 국내외에 알

린스키, 모네, 앙리 루소, 샤갈, 클레, 후안 미로, 앤디워홀, 윌렘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등 근·현대 거장의 걸작 100점 등을 소장하게 됐다. 오히라 미술관의 컬렉션은 약 3천여점. 이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모네의 ‘수련’(1906년 작)과 엘 그레코의 ‘수태고지’(1590~1603년 작)는 미술관의 아이콘이다. 인구 180만명의 지방도시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을 다수 보유한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또한 오키스트 로망, 자코 메티, 헨리 무어, 이사무 노구치 등 근·현대 조각가의 작품들을 한 자

주민들의 모금으로 1993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를 의뢰해 미술관을 신축했다. 물위에 떠 있는 듯한 미술관은 소장품 뿐 아니라 미술관 건물 자체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연중 붐비고 있다. 미술관을 신축하기 전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문을 닫는 날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200~300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도시를 살린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이와함께 일본 현대조각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덴추 히라쿠시(1872~1979)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덴추미술관과 ‘시인화가’로 불리는 다케히사 유메지(1884~1934)의 작품과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유메지 미술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주로 목재를 소재로 작업한 덴추 히라쿠시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모델로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화려하면서도 밝은 색상의 의상을 입고 있는 인물상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덴추 히라쿠시가 일본 조각계의 1인자라고 하면 다케히사 유메지는 회화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꼽힌다. 오카야마 출신의 다케히사는 그림 그리는 시인이라는 별칭답게 일본인들의 일상을 특유의 따뜻한 색깔로 형상화했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오카야마 현, 도시 곳곳에 펼쳐있는 공원화 미술관은 올 가을 예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다.

/오카야마=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고라쿠엔 정원·오카야마 성 등 불거리 풍성

오히라미술관 근·현대 걸작 100여점 소장

리는 일등공신이다. 1930년 오카야마 현의 구라시키에서 방적공장으로 부를 일군 오히라 마구사부로(大原孫三郎)는 친구인 천재화가 고지마 토라지로(1881~1929)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 토라지로의 재능을 아낀 오히라는 친구를 유럽에 유학을 보내 후원했으며 그의 조연을 받아 엘 그레코 등 유명화가들의 미술품을 수집했다.

토라지로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시작으로 점차 현대미술의 작품까지 수집하는 등 컬렉션의 범위를 넓혔다. 작가로서의 그의 안목 덕분에 엘 그레코, 고갱, 로댕, 르느와르, 모딜리아니, 피카소, 마티스, 몽크, 칸

리에서 볼 수 있는 조각공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일본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회화, 설치, 영상작품만을 전시하는 전용공간도 갖추고 있다. 특히 미술관내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해 일본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한다.

구라시키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물위의 미술관’으로 더 유명한 다카하시 나리와 미술관이 나온다. 인구 4만명의 소도시인 다카하시의 나리와 미술관은 출항작가인 고지마 토라지로의 예술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53년 설립됐다. 일본인들의 삶과 애환을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필치로 그려낸 고지마 토라지로를 ‘문화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다카하시는 정부의 지원금과



오히라 미술관에서 학생들이 앤디 워홀의 ‘마블린 먼로’를 감상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미술관인 오히라 미술관.

www.geums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영화에 빠지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상무점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22블렛 (18세)/무적자 (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4관	심야의FM (18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6관	적인걸-촉천후후의 비밀 (12세)
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8관	창을 수 없는 (18세)
9관	검우강호 (15세)
10관	월스트리트 (12세)

하남점

1관	검우강호 (15세)
2관	검우강호 (15세)
3관	심야의FM (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6관	22블렛 (18세)/방가?방가! (12세)
7관	창을 수 없는 (18세)
8관	된장 (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10관	월스트리트 (12세)

항토시영! 영화시영! 매일 심야시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최고급관
2관	검우강호 (15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4관	된장 (12세)
5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6관	월스트리트 (12세)
7관	심야의FM (18세)
8관	방가?방가! (12세)
9관	창을 수 없는 (18세)
10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1관	월스트리트 (12세)

CINUS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3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22블렛 (18세)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5관	적인걸 (12세)/검우강호 (15세)
6관	창을 수 없는 (18세)
7관	심야의FM (18세)
8관	월스트리트 (12세)